
낙동강 오리알은 어느 지역에 있어요?

박현우 · KBS한국어진흥원장

얼마 전에, 한국어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모 PD선배와 우리말과 관련해 대화를 나누었다. 그 선배의 외동딸은 중학생 때 혼자 유학을 떠나 현재 미국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다고 한다. 지난 여름 방학 때, 오랜 만에 만난 부녀는 여러 이야기를 하면서

‘낙동강 오리알 됐네.’라는 아빠의 표현에

‘아빠, 낙동강 오리알은 어느 지역에 있는 거야?’라며 딸이 반문을 했다고 한다.

(주소? 경상도 낙동강 오리알? 뭐야!) 그 선배는 실소를 금치 못하면서도 왠지 씩씩한 마음을 지울 수 없다는 것이었다. 하나 밖에 없는 딸을 위해 본인의 월급을 고스란히 쏟아 부으며 올인(?)하고 있는데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짧은 회한이었을 것이다.

요즘 청소년들 언어 사용과 관련해 우려가 많다. 물론 모범이 되어야 할 어른들의 문제가 크긴 하겠지만 말이다. 필수 어휘력의 부족, 외래어와 외국어의 남용, 존댓말의 실종, 무감각한 욕설의 사용, 심한 축약어의 생산 등 우려되는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물론 유행일 뿐이라며 기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있고 언어의 다양성과 풍부성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정작 문제는 국어 문화

이다. 국어 문화는 한국 사람이면 알아야 될 국어와 관련된 교양 상식에 대한 이해이다. “낙동강 오리알은 어느 지역인가”와 같은 세대간, 계층간의 괴리감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기성세대와 청소년의 언어 간극, 청소년들 중에서도 이제는 대학생과 중고생, 또한 그들과 초등생들 사이에서도 특유 언어문화가 생기면서 서로 틈새를 느낀다고 한다.

청소년들의 언어는 미래 한국어의 얼굴이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말에 대한 기초와 기본을 알게끔 지속적인 전달이 있어야 한다. 어휘는 변화할 수 있어도 말에 담긴 기본 정신은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누군가는 어디에서 또는 그 자리에서 국어 문화에 생명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자양분을 공급해야 한다. 전문적인 연구도 필요하지만 기본적인 일은 언어 문화에 대한 근간을 튼튼하게 해 줄 수 있는 정보와 정신이 청소년들에게 항상 산소같이 공급돼야 할 것이다. 오래 갈 수 있는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고 그래도 부족한 영양소가 있다면 무엇인가 찾아봐서 보충해 주고 하는 것이 기본이 아닐까 한다.

20년의 경험이 쌓인 《새국어생활》은 한국어의 기본부터 꼼꼼하게 살펴, 다양한 미래 국어 환경을 예측하고 정확한 진단과 처방을 통해 건강한 국어가 살아 숨 쉬게 하는 주치의 역할을 해주리라 기대한다.